

# 분쟁 부르는 '층간 소음' 해결책 없나

### 층간 두께 강화·흡입제 사용 등 구조적 방안 마련 배상 기준 있지만 측정 어려워... 주민간 노력 필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층간 소음·진동 문제는 환경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쟁조정 과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 피해배상 금액도 한층 커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관계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온 김모(55)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층에 사는 30대 부부와 5살·3살된 아이들 때문이다.

아이들이 밤 늦게나 새벽까지 뛰어다니며 '쿵쿵' 소리를 내자 김씨는 위층으로 올라가 양해를 구했다. 위층 부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하소연 해도 층간소음에 주의하라는 방송만 내보낼 뿐이었다.

이웃간 층간 소음분쟁이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해 2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손으로 넘어뜨려 어깨 부위 등에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A(41)씨는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고충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모두 4만2345건이며 이 중 층간소음은 358건을 차지했다. 2008년(290건)과 비교해 23.4%가 증가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지역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938건으로 집계됐으며, 2009년(631건)에 비해 4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층간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2010년 3건·2009년에는 6건이었다.

하지만 소음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한 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7월1일 서구의 모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주민 분쟁이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지만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났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층간 소음 분쟁 조정이 이뤄진 지난 2009년 7월8일의 광산구 모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에서도 2개월 간의 조정 끝에 가해자가 '조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생활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을 30% 인상했다. 기준초과 정도가 5~10데시벨이고 피

해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소음의 경우 배상액은 1인당 22만1000원, 진동은 11만1000원이다.

문제는 층간 소음의 경우 산발적이고 단발적이기 때문에 기계로 소음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으로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층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층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소음으로 인한 생활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 두께를 더욱 강화하고 흡입제를 넣는 등 건축시 구조적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많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도시환경협약광주정상회의 10월 11~13일 개최

(3) 쓰레기 감량

## 2012년까지 일회용 50%·폐기물 20% 감축

### 연차별 쓰레기 감량 추진·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아파트 수수료 감면 정책도

도시환경협약의 두번째 화두는 쓰레기 감량이었다. 각 도시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廢物)이 생활공간을 더럽히고 경관을 해치며, 생태계를 오염시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천방안은 ▲쓰레기 제로화 정책을 수립하고 ▲일회용·유독성·비재생 상품류를 2012년 내 50% 줄이는 조례를 제정하며 ▲매립·소각 고령폐기물 1인당 발생량을 2012년 내 20% 감축하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내용 등이

광주는 이행 프로그램으로 연차별 폐기물·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에코 폐기물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나눔장터 활성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각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 감축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양은 2005년에 비해 지난해 32.9%나 늘었다. 광주에서 2005년 하루 음식물 쓰레기양이 359톤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477톤으로 급증했다.

1년에 광주 시민 1인당 119.767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이는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적은 부산은 시민 1인당 1년에 79.22kg에 불과, 전국 평균(102.7kg)을 크게 밑돌았다.

대형 유통업체의 1회용품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6개점을 분석한 결과 1회용품 판매량은 2005년 종이컵 738만 4000개·1회용 용기 144만6000개·나뭇젓가락 317만2000개였으나,

지난해는 종이컵 808만1000개·1회용 용기 217만8000개·나뭇젓가락 392만4000개로, 2005년 대비 모두 34.3%(362만6000개)나 늘었다.

여전히 기념일이나 명절에는 선물의 포장재인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고정물, 등나무 채반 등 1회용품이 쓰레기로 나오고 있다. 구청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1회용품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이다.

쓰레기 증가에 따른 행·재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배출되거나 분리수거할 주변이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넘쳐나고 이를 치우기 위해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 지역 세대수는 54만으로 2005년 대비 세대수가 25%나 증가한데다 외식률이 높아져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적었다"며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시설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자전거로 환경사랑 실천해요”

모국인 한국을 알기위해 방한한 전 세계 60여 개국 재외교포 청소년 380여명이 17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 주변에서 친환경 녹색 한국 'Green Korea, Green Citizen'을 슬로건으로 아트바이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습 밀렵 징역 최고 7년

###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밀렵신고포상금도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야생동물보호법은 이날 중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 밀렵자에 대해 징역형만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고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상습적으로 멸종위기 1급(50종)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상습 밀렵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도 했지만, 개정안은 상습밀렵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했다. 멸종위기 2급(171종) 야생동물을 상습 포획·채취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형(3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을 받을 수 있다.

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상습 포획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하거나 몇 등을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 밀렵의 경우도 벌금형 하한선이 멸종위기 등급에 따라 300만~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벌금 하한선이 없었다.

반면, 밀렵신고자 포상금은 현행보다 최대 10배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공포에 맞춰 7개 유역(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밀렵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기, 불법엽구(뽕그물, 울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이나 가공·판매·거래 행위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한·중 보하이만 원유 유출 공동방제 나선다

### 관련 정보 공유... 피해 최소화 위해 협력키로

중국 보하이만(渤海灣·발해만)의 해상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한·중 양국은 해양 유류오염 공동방제를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도렴동 외교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 김경숙 국제경제국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양국 간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현재 보하이만 일대가 국제적 방제협력 시스템인 '북

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 적용을 받는 구역은 아니지만 기름유출 사태가 한·중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공동방제 협조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중국 측은 "한반 검토해보자"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중국 국가해양국을 주축으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전문가 간의 정보공유 강화를 비롯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사고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양국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한·일 환경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p><b>상무점</b></p> <p>1관 카2(전체) / 고양이(15세) / 퀵(15세)</p> <p>2관 카2(전체) / 트랜스포머(12세)</p> <p>3관 퀵(15세)</p> <p>4관 고지전(15세)</p> <p>5관 고지전(15세)</p> <p>6관 트랜스포머3(12세)</p> <p>7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p>8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p>9관 빨간모자의전설2(전체) / 씨니</p> <p>10관 바니버디(전체) /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p>	<p><b>하남점</b></p> <p>1관 트랜스포머3(12세)</p> <p>2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p>3관 고지전(15세)</p> <p>4관 고양이-죽음울보는두개의눈(15세) / 카2(전체)</p> <p>5관 퀵(15세)</p> <p>6관 퀵(15세)</p> <p>7관 바니버디(전체) / 씨니(15세)</p> <p>8관 고지전(15세)</p> <p>9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p>10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	-------------------------------------------------------------------------------------------------------------------------------------------------------------------------------------------------------------------------------------------------------------------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p><b>MEGABOX</b></p> <p>M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 최고급관</p> <p>2관 고지전(15세)</p> <p>3관 고양이-죽음울보는두개의눈(15세)</p> <p>4관 트랜스포머3(12세)</p> <p>5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p>6관 카2(전체)</p> <p>7관 퀵(15세)</p> <p>8관 바니버디(전체)</p> <p>9관 고지전(15세)</p>	<p><b>CINUS</b></p> <p>1관 바니버디(전체)</p> <p>2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전체)</p> <p>3관 바니버디(전체) / 트랜스포머3(12세)</p> <p>4관 바니버디(전체) / 고지전(15세) / 퀵(15세)</p> <p>5관 씨니(15세) / 카2(전체)</p> <p>6관 퀵(15세)</p> <p>7관 고지전(15세)</p>
------------------------------------------------------------------------------------------------------------------------------------------------------------------------------------------------------------------------------	---------------------------------------------------------------------------------------------------------------------------------------------------------------------------------------------------------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저가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선책 • wshw.cinus.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